

‘메시지’ 측정 — 텍스트 및 인지언어학적 접근 —

정혜연 · 고효정
(충남대)

1. 들어가며

어떤 전문통역사에게 통역의 원리를 한 마디로 설명하라면 무엇이라고 답할까? 표현의 차이는 있겠으나, 통역은 무엇보다 ‘의미’를 파악하여 전달하는 행위라는 것이 대답의 요지가 될 것이다. 이렇듯 통역의 중요한 원리가 의미파악이다 보니 통역교육에 있어서도 초기에 통역할 텍스트에서 의미를 분리해 내는 연습, 즉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통역에 있어서 의미가 갖는 중요성은 통역은 단어 치환이 아닌 의미, 즉 메시지 전달행위다 라는 의미 통번역론(theory of sense), 혹은 해석이론(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¹⁾의

1) “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석이론은 번역뿐 아니라 통역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이론이다. 또 이 이론은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실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어서(이향 2009:129) 본고에서 이론의 핵심개념인 메시지를

핵심 명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의미’, 혹은 ‘메시지’의 실체는 무엇일까? 의미란 청자, 혹은 화자가 이해 혹은 발화를 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창출하는 것이어서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인지체이다. 이러한 이 개념의 형태, 특징을 알고 이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통역습득자의 잠재력, 통역능력 발전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본고에서는 텍스트를 접한 이의 인지활동의 산물인 ‘의미’를 인지 및 텍스트언어학 측면에서 살펴보고,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이 개념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의미’ 개념이 통번역학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정의된 바 있는 관계로, 통번역학의 선행연구를 통해 본 개념을 통역사의 관점에서 상세화하고자 한다. 이론 부분의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의미’의 측정 방식을 논한다. 이러한 측정방식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험 부분에서는 통역학생 3인을 피검자로 이 측정방식을 적용한다. 그 결과와 결과 분석을 통해 본고가 제시한 의미 측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

2. ‘메시지’란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미’ 혹은 ‘메시지’라는 본고의 연구대상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먼저 ‘의미’는 언어학의 전문용어로도 사용되지만 일상적으로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만큼 그 정의도 분분하고,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Putnam 1975 참조). 통역과 관련해서는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1978)가 ‘의미(sense)’를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와 대비시키며, 언어의 형태를 의식적으로 버리고 남은 언어의 내용물이란 뜻으로 사용하였다(셀레스코비치 1978: 336). 셀레스코비치(1978)에서는 이 용어가 통역에 특화되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만큼 학문적 토론에서는 혼동의 여지가 있다. 본고가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통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게 학문적으로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

역상황에서의 발화계획, 이해의 산물인 인지체를 지칭하기에 ‘의미’는 지나치게 일반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한편, ‘메시지’ 역시 셀레스코비치가 통역 원리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바 있는 용어인데, 통역학, 특히 통역교육에서 ‘통역에서 통역사가 전달해야 할 의미’라는 보다 특화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선 ‘의미’에 화자의 의도가 보다 강화된 개념이라 하겠다(Seleskovitch 2002: 59). 두 용어 모두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는 어휘이지만, 본고에서는 일상용어 사용빈도 상 정의와 함의가 상대적으로 적고²⁾, 무엇보다 통역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메시지’ 개념을 차용하여, 이를 본고에 맞게 정의해보겠다.³⁾

본고에서 사용하는 메시지의 개념은 통역에서 화자의 발화계획체, 청자의 인지적 이해결과체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인지언어학의 ‘컨셉트(concept)’ 개념이 통역상황에서 특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 ‘컨셉트’란 간단히 정의해 볼 때, 인간의 인지처리과정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포괄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시간에 흐름을 반영한 기억인출과정(스크립트)이라던가, 문제해결 처리과정(정신모델)을 나타내는 등, 각기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유사 인지언어학적 용어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컨셉트는 하위 단위의 작은 컨셉트가 모여 하나의 명제(proposition)를 이루고 여러 명제들이 모여 상위 단위의 컨셉트가 된다. 또 순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니 만큼 임의적 형태를 띤다. 즉, 어떤 개념이 가장 먼저 연상시키는 것이 이미 지나, 아니냐에 따라, 언어적 형태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Seebaß 1981). 컨셉트는 이렇듯 언어적, 비언어적 형태가 교차되며 형성된다. 또 상위 컨셉트는 하

2) 세종말뭉치에서 메시지에 대해서는 252개, 의미에 대해서는 5498개의 용례가 검색되었다.

3) 셀레스코비치의 ‘의미(sense)’와 비교될 수 있는 개념에는 레더러(Lederer 1978)가 사용한 ‘의미단위(unit of meaning)’, 세튼(Setton 1999)에 의해 정의된 ‘의미조합체(meaning assembly)’도 있다. 특히 세튼(1999)은 ‘의미’를 음운, 통사, 의미, 화용론적 특징의 조합으로 보고, 무엇보다 화용론적 측면을 강조하여, 의도와 맥락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언어적 특징이 조합되어 의미를 이룬다고 하였다.

4) 화자의 발화계획체, 청자의 이해결과물을 나타내는 인지언어학적 용어로는 바를렛(Bartlett 1932)의 ‘도식(Schema)’ 필모어(Fillmore 1977)의 ‘장면(scene)’, 개념이나 존슨-레이어드(Johnson-Laird 1983)의 ‘정신모델(mental model)’, 쉹크 & 애벌슨(Schank & Abelson 1977)의 ‘스크립트(script)’ 등이 있다.

위 컨셉트 간의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 수도 있다(Herrmann 1985).

본고에서는 이러한 ‘컨셉트’를 통역상황에 특화시킨 개념을 ‘메시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메시지’란 통역상황에서 형성되는 컨셉트를 말한다. 메시지가 앞서 설명한 컨셉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메시지’는 통역사가 이를 의식적으로, 나아가 전략적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통역사는 기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통합한 후, 여기에 화자의 의도를 더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형성한다. 이는 대체로 의식적으로 노력할 경우(즉 전략적으로 구성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메시지’란 통역사가 텍스트를 접하거나 구성할 때, 이들 ‘머리에 형성되는 것으로 언어(여러 가지 언어), 비언어)가 혼합된 형태, 혹은 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는다(정혜연 2005: 307).

3. 메시지의 측정

3.1 메시지의 측정방식

이제 위에서 정의한 메시지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자.⁵⁾ 메시지는 언어와 비언어가 혼합된 형태이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언어적 형태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적 요소 중에서도 메시지를 형성하는데 인출단서가 될 수 있는 요소(내용면에서 핵심어, 구조면에서 접속사 등)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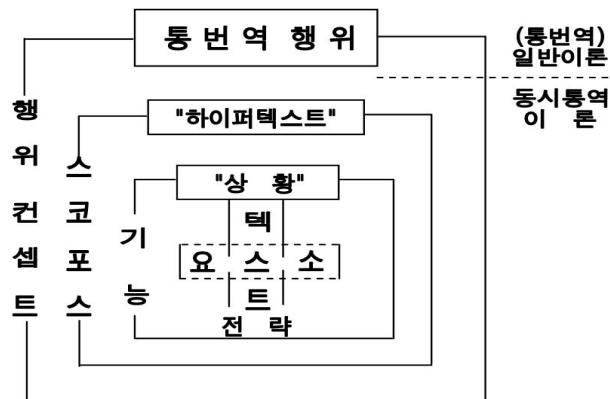
다른 담화 상황도 그러하지만 통역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 내부 문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외적을 포함해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본고가 참고해볼 수 있는 것은 뢰히하커(Pöchhacker 1994)의 다차원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통역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는 우선

5) 셀레스코비치(1978)의 ‘의미’ 정의와는 달리, 본고의 ‘메시지’ 개념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비언어적 형태만을 띠는 것도 아니다.

6) 본고의 메시지 측정에서는 메시지의 발화계획체의 측면보다는 통역사가 텍스트를 접했을 때 이를 이해한 결과물로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통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텍스트 이해에서 밑바탕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상황’(예: 행사의 종류, 연사, 청중 등)에 따라 특정 텍스트 생산에 필요한 ‘의도’가 구체화된다(아래 모델에서는 텍스트의 ‘기능’).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안에 배치되는 것이 이해의 본 대상인 텍스트 요소이다. 텍스트 요소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요건으로, 크게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는 텍스트의 뼈대를 이루고 ‘내용’은 그 구조를 채운다. 통역사는 ‘상황’의 맥락에서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텍스트의 기능)를 파악하고, 텍스트 ‘요소’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메시지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 때 통역사 이해의 결과물인 메시지를 측정할 때에는 상황, 의도, 구조, 내용, 이 네 가지가 측정대상이 되겠다.

〈그림 1〉 피히하커(1994:115)의 다차원 모델



이 중 텍스트 이해의 외부 틀인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통역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기, 통역에 참여하는 참가자, 나아가 이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 지식 등을 말한다. 이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피검자에게 통역에 사용할 텍스트를 주고, 텍스트를 분석하게 한 후, 설문을 통해 그 텍스트가 사용된 상황을 유추하여 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기, 장소, 주제지식도 사후 설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단, 질문 범위가 다소 넓은 주제 지식의 경우, 텍스트 이해에서 중요한 지식을 선정하여 질문한다. 이때 질문의 개

수는 텍스트의 길이, 정보밀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는 텍스트를 하나의 행위로 본다면,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언어를 행위로 보고 언어에 의해 유발되는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를 분류한 쉘(Searle) (1979)의 화행론을 참조하여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단언’, ‘지식’, ‘언약’, ‘경고’, ‘설득’ 등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겠다(송경숙 2005:164). 이렇게 의도를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화행의 유형만 맞으면 표현이 다른 여러 대답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답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텍스트의 의도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하나 이상일 수 있다는 (단언+언약 등)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의도는 두 가지 도구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텍스트를 구조화 한 *내용지도(Content-Map)*를 통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사후 설문*에서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이다. 내용지도란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마인드맵을 보다 체계화하고 여기에 적극적 어휘 활용 개념을 더한 도구로, 통역훈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Stoll 2000, 정혜연 2007: 111 참조). 즉, 텍스트 생산자의 사고흐름을 반영하기는 하되, 텍스트의 구조는 왼쪽에, 텍스트 내용은 오른쪽으로 나누어 씌으로써 방사형 형태여서 다소 두서없이 보이는 마인드맵을 보다 체계화한 것이다. 그리고 내용이 담긴 오른쪽에는 핵심어에 해당하는 어휘를 적음으로써 통역에서 사용할 어휘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미리 활성화해두는 효과를 볼 수 있다(아래 내용지도 예시 참조)

이러한 내용지도에는 특히 서문이나 결론 쪽에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예: 결론 - 무역자유화를 위해 노력하자(설득)),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피검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피검자의 내용지도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피검자가 텍스트의 의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 후 이루어지는 사후 설문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

〈그림 2〉 내용지도 작성 예시
(연평도 사건 발생 후 이명박 대통령 국민담화)

구조	내용
서문	- 대통령으로서 책임통감, 송구
본문1	- 북한 무력 도발 새로운 차원 → 민간인 공격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북한 무력도발 (아웅산, 민간기 폭격) • 그러나 남한은 인내 (식량지원, 경협) • 그러나 북한은 도발 지속 (핵개발, 천안함) • 그리고 이번 연평도 사건
본문2	- 반응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 북한의 진면모 발견 → 단합 • 국제사회 - 북한 규탄, 우리 입장 지지 • 군장병 - 용감히 대처 - 대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군강화, 국방개혁
결문	- 국민 - 힘 모아달라

이제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과 구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앞서 소개한 내용지도 작성이나 텍스트 재구성 방식이 있다. 내용지도의 경우, 텍스트를 단순화 한 만큼 구조가 보다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메시지의 형태를 파악하기 좋다. 후자인 텍스트 재구성의 경우, 텍스트 내용과 구조표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장점이나, 피검자가 텍스트를 기억하느냐고 본래 과제인 텍스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내용지도이든, 텍스트 재구성이든, 피검자가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했는지를 알고자 할 때 먼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은, 텍스트의 진행기준과 단절표시이다.⁷⁾ 전자는 텍스트가 어떠한 기준피검자가 작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텍스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나열식, 혼합식 기준도 자주 사용된다(Levelt 있다웁다:1뵈웁). 후자인 단절표시도 나열식,구조에 변경에 온다는 것을 알려주

7) ‘내용’부분 오른쪽 괄호 안 밑줄 친 곳이 진행기준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내용’ 부분에 열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단절표시를 보여주고 있다.

는 표지이다. 이는 인과기준, 시간기준 텍스트의 경우, ‘그러나’, ‘이제’, ‘앞으로’와 같은 접속어, 부사어일 수도 있고, 나열기준 텍스트의 경우, 단락의 핵심어를 포함한 어절일 수 있다(‘한국의 대표 과일’은 사과, 배, 감이다. 사과와 경우...배는...감의 경우...). 연설문의 경우, ‘여러분’ 등의 호칭이 될 수 있고,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의 형태일 수도 있다. 구두 텍스트에서는 휴지(pause)로 이를 표시할 수도 있다. 그 점에서 담화이론에서 말하는 담화표지(discourse marker)를 보다 확장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진행기준과 단절표시로 대표되는 텍스트의 구조는 내용지도 작성 시 구조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왼쪽에 표시해줄 수 있다 (위 내용지도 중 왼쪽 ‘구조’ 부분 참조).

‘내용’은 무엇보다 **핵심어절**(**어구/문장**)¹⁰⁾을 통해 알 수 있다. 텍스트 단락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그 단락의 내용을 대표하는 핵심어절을 선택하고 그 핵심어절 간의 연계관계를 표시한다면, 피검자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어절은 작은 단위의 메시지라고 하겠고, 이 메시지가 연계된 형태는 메시지의 네트워크, 즉 큰 단위의 메시지라 하겠다. 이 핵심어절에도 주요 정보와 부수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부수 정보는 내용지도 작성 시, 들여쓰기를 하거나 괄호 안에 넣어줌으로써 주요 정보 보다 하위 층위에 있음을 표시해줄 수 있다 (위 내용지도 중 ‘내용’ 부분에서 이탤릭체로 된 부분 참조).

이렇듯 텍스트의 구조와 내용은 내용지도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지도의 단점은, 피검자의 인지활동의 ‘결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드러난 메시지를 의식적, 나아가 전략적으로 구성해나가는지의

-
- 8) 어절이란, 한글에서 단어에 조사가 첨가된 언어 단위로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가 되는 문법단위를 말한다. 예) 앞 문장의 ‘한글에서’, ‘조사가’ 등
- 9) 메시지 형성에 필요한 인출단서는 반드시 어절 하나일 필요는 없다. 1~2개의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어구, 문장도 하나의 인출단서로 기존 지식을 불러와서 메시지를 형성할 수도 있다.
- 10) 핵심어절/어구/문장의 선정기준으로는 정혜연(2005:312)의 실험결과를 사용한다. 즉, 한 명제 내에서 레마(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어절/어구, 또 같은 문장 내 다른 어절과 언어(collocation)을 이루고 있는 어절/어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문단 도입에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문장 전체를 핵심 문장으로 본다.

여부, 또 메시지 구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메시지 구성에 걸린 시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용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관찰은 직접적 관찰, 촬영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화면활동캡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아래 실험에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MSR)를 활용하여 메시지 작성 전략을 관찰해 보겠다.

3.2 메시지 측정도구 ‘MMT’

편의를 위해 이상에서 소개한 메시지 측정도구를 아래에서는 MMT(Message Measurement Tool)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MMT에서는 심리검사에 필요한 일련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으로는 검사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다(Anastasi/Urbina 2009). 첫째, 검사지는 검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담고 있는지(타당성)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타당성은 보통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문항에 대한 평가회의를 갖거나, 회의를 거쳐 확보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미비하나마 통번역학을 전공 중인 대학원생과의 3차례 평가회의 과정을 거쳤다. 둘째, 신뢰성은 검사도구의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객관성 확보를 통한 반복가능성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본 테스트 이전에 사전 테스트 실시, 다른 검사와의 상관관계(유사 과목 학교 성적 등) 구하기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 볼 실험은 이 중 사전 테스트의 성격을 갖는다. 또 피검자의 메시지 형성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역능력을 테스트하여 이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구함으로써 MMT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검사지 개발에 있어 검사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4개의 텍스트, 1인당 검사시간 1시간으로 제한하였다. 검사목적, 피검자 등에 따라 텍스트 수, 유형, 난이도와 검사모드, 검사 시간은 조정가능하다. 피검자의 통역능력과 관련하여 메시지 형성능력을 측정하려면 텍스트가 통역상황에서 쓰이는 실제 텍스트와 유사해야 할 것이고(진정성 (authenticity)), 피검자가 통역습득의 초기 단계라면 텍스트의 구조가 분명하고, 내용이 익숙한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실시한 MMT는 다음과 같은 하위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MMT의 구성

검사종류	사전설문	내용지도 (필기)	텍스트 재구성 (구두)	사후설문
관찰목적	인적사항, 인지능력 습득과정	텍스트 내용과 구조 (과정/결과)	텍스트 내용과 구조 (결과)	텍스트 상황과 의도
실험자료 및 방식	7문항 1장 분량 / 컴퓨터 작성	2개 텍스트 / 컴퓨터 작성	2개 텍스트 / 구두	24문항 2장 분량 / 컴퓨터 작성
자료수집 방식	화면캡처(MSR)/ 결과물 인쇄	화면캡처(MSR)/결과물 인쇄	디지털 녹음	화면캡처(MSR)/결과물 인쇄
소요시간	10분	20분	15분	15분

또 위 검사지 결과에 대한 평가방식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각 하위분야에 같은 점수(100)를 배당한 것은 이 5가지 항목을 일단 비슷한 비중으로 본 것이다. 평가목적에 따라, 이 점수는 그대로 두고, 합계를 구할 때 여기에 가중치를 둘 수도 있다 (예: 의도, 상황 각각 15%, 구조, 내용 각각 30%, 시간 10%). 또 정답과 어긋나는 경우 감점을 하는데, 이 때 감점의 폭은 평가자가 정하되 일률적 크기로만 하면 피검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2〉 MMT 결과 평가

	관찰 자료	평가 방식	배점
의도	사후 설문	미리 준비한 정답과 화행유형이 맞으면 정답	100
구조	내용지도 텍스트재구성	미리 텍스트에 정해놓은 진행기준, 단절표시와의 일치하면 정답	100
내용	내용지도 텍스트재구성	미리 텍스트에 정해놓은 핵심어절/어구/문장 및 이들의 네트워크와의 일치하면 정답	100
상황	사후 설문	미리 준비한 정답과 유형이 맞으면 정답	100
시간	화면캡처 프로그램에 표시	(1) 100 - [다른 항목(의도, 구조, 내용, 상황)의 최저점수대] = x (2) 최대 시간소요자 점수를 x'로 두고 이를 만점으로 각 피검자 소요시간의 비율 구함 (a:b:c)	100

		(3) (100-a), (100-b), (100-c)가 각 피검자의 점수 ¹¹⁾	
합계			500

4. 실험

4.1 실험목적 및 설계

본 실험의 목적은 위에서 설명한 메시지 측정도구(MMT)의 신뢰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MMT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전 테스트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MMT를 통해 측정한 피검자의 메시지 형성능력을 먼저 점검하고, 후에 같은 피검자의 통역능력을 측정하여 이 두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본 실험에 참가한 피검자는 3명의 대학3년 독문과 학생(여)으로 실험 당시 공히 만 22세였다. 피검자 모두 유년, 학창시절을 한국에서 보냈고, 대학 입학 이후 2개월-2년 간의 독일 체류경험을 했다. 통역관련 과목 수강이나 통역 경험이 전혀 없는 이 학생들은, 2011년 9월 14일-12월 21일까지 텍스트 분석을 포함하여 총 12시간의 (독-한) 통역교육을 받았다. 본 실험은 교육 종료 약 2주 전인 12월 7일에 실시되었다.

본 실험을 위해 사용된 텍스트는 총 4개(연설문 3개, 신문사설 1개)로, 그 유형과 문체에서 통역에서 나올 수 있을만한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분량은 A4 1/2-3/4 정도였다.

11) 각 피검자마다 시간차가 클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시간차로 인한 점수 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산법이다. 쉽게 말해 100점 만점에서 다른 항목의 최저 점수만큼의 기본 점수를 깎아주고, 나머지 수치에서만 각 피검자의 소요시간 비율을 구해서 빼주는 것이다.

〈표 3〉 MMT 결과 평가

	텍스트 1(필기)	텍스트 2(필기)	텍스트 3(구두)	텍스트 4(구두)
유형	연설문	연설문	신문사설	연설문
주제	한미 FTA 장점	한류문화 촉진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록금 인하 촉구
연사	이명박 대통령	문화관광부 대표	신문기자	야당 정치가

실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실험 전반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주지시킨 후, 컴퓨터에 저장된 사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사전 설문**에서는 피검자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한국어배경(학습, 매체, 관련 강좌수강 경력, 한국어 접하는 방식), 상식습득 방식을 물었다. 이 시기부터 미리 컴퓨터에 설치해 둔 MSR(My Screen Recorder) 프로그램¹²⁾을 활용하여, 피검자의 모든 화면 활동을 녹화하였다. 그 후 텍스트 예시를 통해 내용지도 작성방식과 텍스트재구성 방식을 설명하고, 먼저 **내용지도(필기)** 시험에 응하도록 하였다. 필기시험 후, MSR를 잠시 멈추어 두고, **텍스트재구성(구두)** 시험을 치렀다. 그 후, **사후 설문**을 할 때에는 다시 MSR을 재작동시켜 설문응답과정을 녹화하도록 하였다. 사후 설문은 텍스트 하나 당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4〉 사후 설문의 예시

1. 텍스트 1의 난이도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2. 텍스트 1의 주제 친숙도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친숙	친숙	보통	낮춤	매우 낮춤
3. 텍스트 1의 연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성향, 지위 등. 설명 거명도 가능)					
4. 텍스트 1의 청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성향, 지위 등. 설명 거명도 가능)					
5. 텍스트 1이 사용되는 행사는 언제 어디서 행해지는 어떤 성격의 행사일거라 생각하십니까?					
6. 자유무역과 FTA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약술해주세요.					

12) <http://www.deskshare.com/screen-recorder.aspx/>

4.2 실험결과 및 분석

아래에서는 상황, 의도, 구조, 내용의 평가방식을 텍스트1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실험결과 분석대상은 MRS 동영상 파일(설문 및 내용지도 작성과정), 디지털 음성 파일(텍스트 재구성), 내용지도 및 설문 인쇄물, 세 가지였다.

(1) 상황: ‘이명박 대통령’을 정답으로 하고 여기에 정확도에 따라 약 3점씩을 감점을 하였다.

예) 텍스트 1(한미 FTA 장점)의 연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성향, 지위 등. 설명 거명도 가능)

- 피검자 1 - 대통령, 혹은 대통령 대변인 (25점 만점에 22점)
- 피검자 2 - FTA 찬성 쪽의 당 인사 (25점 만점에 19점)
- 피검자 3 - 현 정부 내에서 일하는 정치인 (25점 만점에 19점)

의도는 설문에서 직접 묻지 않고 내용지도에서 유추하였다. 구조, 내용의 경우도 내용지도를 통해 관찰하였다.

(2) 의도: 텍스트 1에 대한 의도는 ‘(정보제공)+설득+(소망)+감사’의 화행유형을 정답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약 3점씩을 감점하였다.

(3) 구조: 아래를 정답으로 하고, 오류의 수와 중요도에 따라 1-5점씩을 감점하였다.

- 진행기준 - 시간기준, 나열기준의 혼합식

- 단절표시 - 오늘, 여러분, 21세기, 이제, 다시 말을 되돌리면, 미국기업인 입장에도, 한국입장에서는, 세계에 주는, 앞으로(마지막 [첨부]에 ‘진하게’로 표시)

(4) 내용: 핵심어절/어구/문장은 분고 마지막 [첨부]에 ‘밑줄’로 표시된 부분을 정답으로 하고, 오류와 수와 중요도에 따라 1-5점씩을 감점하였다. 구두시험의 경우는 핵심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다.

- 피검자 2¹³⁾ - 피검자 2는 내용지도 작성에 있어 시간소요가 적었다(172초,

13) 위 부분은 채점기준과 방식을 보여주기 위함이므로 두 사례로도 충분하다 사료되어 피검자 1의 내용지도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87.4점). 내용지도를 매우 간결하게 작성한 만큼, 내용면에 있어 많은 핵심어 절을 놓쳐 낮은 점수를 받았고(82점), 구조상으로는 나열기준은 파악했으나 시간기준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빈부격차, 일자리 창출, FTA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이 감점의 요인이 되었다(91점). MSR 영상분석 결과, 피검자 2는 텍스트 전체에 대한 메시지 파악이 된 상태에서 내용지도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또 중간에 수정이 거의 없었다. 내용지도 표현 자체가 간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명제에서 행위자, 수혜자 등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의도에서는 정보제공 화행은 부분적으로 실행되었고 설득의 화행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소망의 화행은 나타났으나, 감사의 화행은 어떤 형태로도 표현되지 않았기에 감점되었다(91 점).

<p>서문 : KORUS의 의미 본문 : 21세기의 당면과제 - 빈부격차 심화 - 일자리 창출 - 한미 FTA추진</p>	<p>한미 FTA의 장점 - 일자리 창출 - 세계경제에 긍정적 - 한미 동맹 강화 - 통상 강화 결론 : FTA의 성공 기원</p>
--	--

- 피검자 3 - 피검자 3은 셋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고(681초), 시간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다(50점). MSR 영상분석 결과, 피검자 3이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은 텍스트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지도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중간에 많은 휴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음에 왼쪽의 구조(도입, 본문, 결론)를 먼저 쓰고 내용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전략을 썼는데, 메시지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는 언어적 표현에 지나치게 치중해 이를 자주 고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중간에 구조를 한 차례 수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내용 상세도는 높아 내용에서는 다시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97점). 세부적인 내용에 비해서 구조면에서는 다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한미 FTA의 중요성(장점)을 설명하는 데에 나타난 한국, 미국, 세계의 나열구조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데, 이로 인해 각 명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또 본문의 일부를 결론에 넣은 점도 감점의 대상이 되었다 (91점). 마지막으로 의도 면에서는 정보제공, 설득과 소망, 감사, 모두가 담겨 있어 만점을 받았다.

도입: 특별한 의미를 가진 코러스 FTA 본문1: 빈부격차 문제의 심각 → 해결방법 일자리 창출 한미FTA가 일자리창출에 기여 모두에게 도움이 됨 FTA추진해야함 본문2: 한미FTA가 비준을 앞둠 반대이유: 실업 비준 후 FTA찬성이 옳다는 것을 확신	본문3: FTA성사는 중요 본격적인 투자 진행 기업인들의 능력 발휘, 일자리 창출, 긍정적인 평가 결론: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측면 한미 동맹 강화 한미FTA가 중요한 메시지가 됨 오바마대통령 및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	--

이상은 필기시험의 예이다. 구두시험에서도 구두시험만의 특징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구조, 내용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선 ‘구조’ 항목에서는 ‘단절표시’ 관찰에 구두, 필기시험 간 차이가 있었다. 단절표시는 필기시험보다 구두시험(텍스트재구성)에서 보다 잘 관찰할 수 있었다(예: 피검자1 - 텍스트3에서 ‘이에’, ‘그래서’, ‘앞으로’ 등의 단락 구분 사용). 위에서 본 필기시험(내용지도)에서는 피검자가 구조상의 단절표시를 문단이 나뉜다는 표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이를 내용지도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단절표시의 하나인 휴지(pause)는 단절표시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구두시험에서 휴지는 전략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고, 대체로 피검자가 텍스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망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내용’ 항목에서는 기억력이 구두시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구두시험의 ‘내용’ 점수가 필기시험보다 크게 낮은 것은, 3인 피험자 모두 절반-1/3가량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력은 메시지 측정에 방해 변수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메시지 형성능력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 기억이란 형성한 메시지를 저장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또 메시지를 잘 체계화 했을수록, 그 메시지를 기억의 형태로 저장하기도 쉽다는 점에서 많은 양의 기억은 체계적 메시

지 형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시간’ 항목과 관련하여 순발력도 구두시험에서 두드러진 변수였다. 구두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는 달리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메시지 형성이 빠르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필기시험에서는 구조와 주요 내용이 잘 반영된 경우,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대체로 메시지 형성이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지만, 구두시험에서는, 실제 메시지 형성에 소요된 시간과는 별도로, 표현의 순발력만 좋아도 시험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발력이 메시지 능력 측정에 방해 변수라고 하더라도, 구두시험에서 시간에 대한 배점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겠다. 발화의 순발력이 메시지 형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통역능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MMT 구두시험과 통역시험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아래 4.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5 통역시험과의 상관관계

본 실험의 목적은 MMT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MMT의 메시지 형성 능력 측정방식이 타당하다면, MMT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는 실제 메시지 형성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통번역론에서 주장하듯 메시지 형성능력이 실제 통역능력의 핵심능력이라면, 메시지 형성능력, 통역능력, 이 두 능력 간에는 실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물론 본 실험자가 통역 초급자이고, 아직 B언어인 독일어 능력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두 능력의 상관관계에 외국어 능력, 통역전략 등 다른 변수가 개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수로 인한 결과 왜곡은 사전 설문을 통해 피검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결과분석에 활용함으로써 희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두 능력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증명된다면, 실제 MMT은 메시지 형성도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위에서 본 MMT 평가점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MMT 평가 (T1) 결과

텍스트	텍스트1 - 한미 FTA			텍스트2 - 한류문화 촉진책		
	피검자 1	피검자 2	피검자 3	피검자 1	피검자 2	피검자 3
의도(100)	100	91	100	100	100	91
구조(100)	91	91	91	91	91	91
내용(100)	91	82	97	91	82	91
상황(100)	87	78	71	87	93	94
시간(100)	75.6	87.4	50	70	86.8	50
합계(500)	444.6	429.4	409	439	452.8	417

텍스트	텍스트3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텍스트4 - 등록금 인하 촉구		
	피검자 1	피검자 2	피검자 3	피검자 1	피검자 2	피검자 3
의도(100)	70	70	91	91	91	91
구조(100)	91	85	100	91	91	94
내용(100)	73	61	43	70	76	49
상황(100)	94	98	86	93	86	85
시간(100)	60.1	68.3	50	53	65.7	50
합계(500)	388.1	382.3	370	398	409.7	369

본 실험의 피검자 3인은 통역교육을 마치고 일주일 뒤인 12월 28일 네 개의 텍스트(연설문, 신문사설)로 이루어진 통역시험(4-5문장씩 끊어 불러주고 순차통역)을 치렀고, 이들의 통역은 녹음되었다. 이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교의 제1저자를 포함한 4인의 전문통역사¹⁴⁾가 이 텍스트에 대한 평가방식을 논의하였고, 이 4인은 논의한 방식에 따라 통역 시험결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다.¹⁵⁾

14) 여기서 전문통역사란 박사과정 이상의 정규 통역, 통역학 교육을 마치고, 통역교육 및 통역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15) 통역시험의 구체적인 방식과 통역시험에 사용한 텍스트, 통역시험 평가기준 및 배경에 대해서는 정혜연(2012) 참조

〈표 6〉 통역능력 평가(T2) 결과¹⁶⁾

평가자	평가자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4	평균	% ¹⁷⁾
피검자 1	122.5	175.25	177.25	150.75	156.44	78.22
피검자 2	155	176.5	182	170	170.88	85.44
피검자 3	63.25	126.25	166	113	117.13	58.57
평균	113.58	159.33	175.08	144.58	148.15	74.08
표준편차	46.52	28.66	8.22	29.00	27.00	13.90

이 두 평가결과(T1, T2)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 방식을 통해 통계적으로 구해보았다. 본 실험의 표본크기가 3으로 매우 작아 통계적 검증방식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3이라는 표본크기는 모집단과 유사성을 전제할 수 있는 최소 크기라는 점에서 통계방식을 사용해보기로 하였다. 또 이는 두 검사지 간의 관계를 수치화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두 평가 간의 상관관계는 필기, 실기테스트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구두-통역시험 간의 상관관계가 필기-통역시험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통역이 구두능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메시지 형성능력에서도 구두능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구두시험인 텍스트4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유의했다. 텍스트4는 메시지 구성능력 이외에 그 결과인 기억력과 나아가 표현순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 텍스트란 점에서 통역능력과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진 텍스트라 할 수 있겠다. 그 결과, 텍스트4에서는 세 피검자의 순위도(피검자2→피검자1→피검자3), 점수 차의 폭도 통역시험과 매우 유사했다.

〈표 7〉 MMT 결과(T1)와 통역능력 평가 결과(T2) 간의 상관관계

		T1 (MMT 평가)					
		텍스트1 (필기)	텍스트2 (필기)	텍스트3 (구두)	텍스트4 (구두)	필기 합계	구두 합계
T2 (통역능력평가)	상관계수	0.764	0.992	0.835	1.000*	0.960	0.987
	유의확률 (양쪽)	0.447	0.082	0.370	0.014	0.181	0.102

*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

16) 결과를 소수점 두 자리(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계산한 것이다.

17)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피검자의 점수를 백분율로 계산한 것이다.

4.6 MMT의 신뢰성 및 개선점

위에서 애나스태지 & 어비나(2009)에 의거해 MMT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사전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사(예: 유사 과목 성적)¹⁸⁾와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었다. 이 중, 후자는 통역능력과 상관관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표본크기가 작아 모든 텍스트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MMT와 통역시험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점에서 MMT는 통역의 핵심원리인 메시지 형성 측정 시험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한편, 위 실험은 MMT 개선을 위한 사전 테스트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따라서 위 실험 과정, 결과에서 얻은 개선점에 대해서도 토의해 보아야 한다. 사전 테스트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기준, 평가방식, 배점의 객관성이다. 우선 모든 항목 간에 감점의 폭만 일정하게 한다면, 실제 오류마다 몇 점을 감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류를 판단하는 기준도 실제 뚜렷하지 않고(평가기준), 감점에 있어서도 부분 점수를 주다보니, 평가 후, 시간이 흐르면 평가자 자신도 자신의 평가방식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평가방식). 또 항목의 비중(의도, 시간 등)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도 문제점일 수 있다(배점). 이는 평가의 목적, 피검자의 유형(초보, 숙련자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어도 무방하다 사료된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평가자를 여러 명 확보하는 것이다. 다수의 평가자는 개개 평가 오류로 인한 전체적 결과 왜곡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는 실험방식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질의 조건을 갖춘 피검자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사전 설문문을 통해 피검자 간의 개인차를 결과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실험진행에 있어

18) 그 밖에도 본 실험에서는 이 목적을 위해 피검자 3인에게 대학3년까지의 성적증명서를 받아 관련 과목을 점수를 비교해보았다. MMT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 과목 중, 3인이 모두 함께 수강한 과목은 ‘국어작문’ 하나였고, 이 과목에서 피검자 2가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다. 이는 MMT 결과나 통역 결과와도 부합한다.

서도 피로감 등의 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충분히 많은 수의 피검자를 확보하는 것 역시, 피검자로 인한 변수를 희석시킬 수 있다.

또 피검자들은 내용지도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배분하고, 이에 대한 예시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지도 작성에 익숙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피검자들이 내용지도를 직접 작성해보도록 한 후, 피드백을 주고, 실험에 착수하는 것이 내용지도의 낮은 완성도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통역의 핵심원리인 메시지의 특징을 규정하고, 메시지 형성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메시지 측정 기준으로는 텍스트의 상황, 의도, 구조, 내용을 선정하였고, 이를 구두와 필기모드로 각각 측정하였다. 이 측정결과를 실제 통역시험과 비교한 결과, 두 결과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본고에서 제안한 MMT는 통역능력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 하다. 본 실험이 MMT 신뢰성 검증을 위한 사전 테스트의 역할을 하였으니, 위에서 제안한 개선점을 보강하여 본 실험에 착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피검자를 대상으로 한 본 실험에서도 MMT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도구를 통역교육과 통역적성검사에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국어만을 실험언어로 하여, 학부생들의 통역적성능력을 평가해 볼 수도 있겠고, 통역교육 중에도 학생들의 텍스트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수업용일 경우, 평가문항 등을 다소 간소화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어, 외국어 작문 수업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언어와 피검자에 따라 다양한 MMT를 개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국어 MMT뿐 아니라 외국어 MMT를 개발할 수도 있고, 통역숙련자의 경우, 외국어로 듣고, 모국어로 시험하는 MMT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피검자가 통역습득 초보자라면 모국어만으로 시험을 시작하고,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도 잘 아는 내용, 뚜렷한 구조를 갖춘 텍스트를 시험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순수한 메시지 형성능력

측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다 메시지 형성능력이 우수해 질수록 구조파악이 어렵고, 주제도 낮은 텍스트를 선정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송경숙 (2005) 『담화화용론』 제2판, 한국문화사.
- 이향 (2009) 「해석이론의 특징과 한계」, 『번역학연구』 10(1): 121-140.
- 정혜연 (2005) 「동시통역에 있어서의 텍스트 이해」, 『독일문학』 93: 303-323.
- (2007) 「연상작용을 통한 문장구역」, 『통번역학 연구』 10(2): 105-126.
- (2012) 「통역잠재력과 통역능력」, 『Foreign Languages Studies』 19(2): 277-300
- 정호정 역 (2004) 『국제회의통역으로의 초대』, 서울: 한국문화사. (Selekvovitch, Danica, 1968, L'Interprète dans les conférences internationales, Paris: Minard),
- 김완석/전진수 역 (2009) 『심리검사』, 서울: 울곡출판사. (Anastasi, Anne & Urbina, Susana, 1996, Psychological Testing, US: Pearson)
- Barlett, Frederic (1932)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llmore, Charles (1977) 'Scene-and-Frames Semantics', *Linguistic Structure Processing*, Zampolli, Antonio (ed.),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55-81.
- Herrmann, Teo (1985) *Allgemeine Sprachpsychologie*, München: Urban & Schwarzverlag.
- Johnson-Laird, Philip (1983) *Mental Model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derer, Marianne (1978) 'Simultaneous Interpretation - Unit of Meaning and other Features',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Gerver, David (ed.): 323-332.
- Levelt, Willem (1989) *Speaking*, A Bradford Book, Cambridge & London: The

MIT Press.

Pöchhacker, Franz (1994) *Simultandolmetschen als komplexes Handeln*,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Putnam, Hilary (1975) 'The meaning of meaning', *Language, Mind and
Knowledge*, Gunderson, K. (ed.), University of Minnesota: 131-193.

Schank, Roger & Abelson, Robert (1977) *Scripts, plans, goals, and
understanding: An inquiry into human knowledge structur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Searle, John (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ebaß, Gottfried (1981) *Das Problem von Sprache und Denken*, Frankfurt a.
M.: Suhrkamp.

Seleskovitch, Danica (1978) 'Language and cognitio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Gerver, David (ed.): 333-341.

Setton, Robin (1999)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Stoll, Christoph (2000) *Onomasiologische Suchalgorithmen zur Dynamischen
Generierung Multidimensionaler Sichten aus vorstrukturierten Daten*.
unpublished paper.

[Abstract]

Measuring the ‘message’
—A cognitive and text linguistic approach—

Chung, Hye-yeon & Ko, Hyo-jung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Message’, as it was defined by Seleskovitch (1968), has been regarded as ‘the’ keyword of interpretation mechanism. The main thesis of ‘theory of sense,’ which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theories of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is not a substitution of the words but creating and delivering messages) makes this point clearly. This paper will first redefine - as it is not an academic term - and characterize the concept of ‘message’ within the cognitive and text linguistic context. Then, the discussion will try to develop a Message Measurement Tool (MMT). The MMT consists of the test categories of ‘intention’, ‘situation’, ‘contents’, and ‘structure’ as well as having its own evaluating system. This paper will aim to examine the reliability of MMT, by means of a pretest. Three female college students, each 22 years of age, were tested for their message creating ability with MMT through both written and oral modes. The results of this test were compared with their actual interpreting performance which was carried out a month later. This pretest demonstrated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ests, especially between the oral part of MMT and the interpreting test. This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improve the MMT in future studies.

▶ Key Words: message, sense, measurement, reliability, empirical

208 번역학연구 ● 제3권 4호

정혜연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조교수

johanna2000@hanmail.net

관심분야: 인지심리학, 통번역학

고효정

충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석사수료

lilyum2000@hanmail.net

관심분야: 통번역학

논문투고일: 2012년 7월 18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8일

<첨부> 실험자료 중 본문에서 예시로 사용한 텍스트 1

어려운 일이 끝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코러스 (KORUS: KOREA+USA) FTA’는 다른 국가 간의 FTA 체결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국민이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고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1세기 당면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빈부격차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국가 간에, 한 국가 내에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격차를 줄이는 기본입니다. 한미 FTA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중·소상공인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FTA가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FTA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미 FTA가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FTA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자리 잃게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준이 되어서 1년, 2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말을 되돌리면, 이러한 모든 점에서 저는 한·미 FTA가 성사가 됐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인 입장에도 한국을 통해 아시아를 향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아주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한미 FTA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이것이 자유무역에 대해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다고 보호주의를 해선 안 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위기 때 각자 살겠다고 보호주의 했을 때 그 위기 극복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문을 열고 통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FTA가 중요한 메시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FTA를 성공시키는 데도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